

광주 살아? 이 앱 들어봤어?
 미담·재미·황금광굴의 다양한 기능 한눈에
있만으로 핫플 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삼

광남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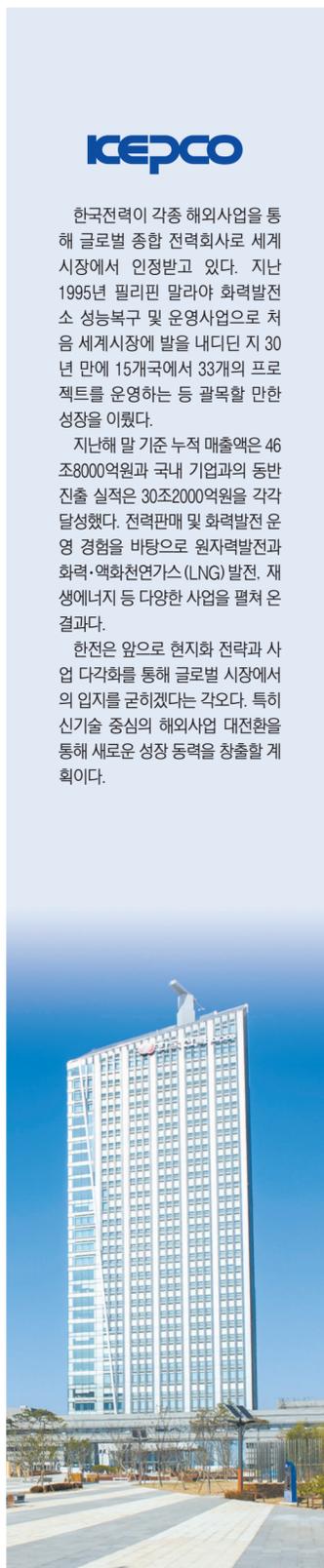
쾌적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DK 다케이 주식회사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
 공기청정기 | 공기정화기 | 공기순환기 | 계승기 | 에어컨 | 공기청정기

주간 제7835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음력 4월 4일)

해외사업 30년... 글로벌 시장 경쟁력 입증



KEPCO

한국전력이 각종 해외사업을 통해 글로벌 종합 전력회사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95년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 성능복구 및 운영사업으로 처음 세계시장에 발을 내디딘 지 30년 만에 15개국에서 33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은 46조8000억원과 국내 기업과의 동반 진출 실적은 30조2000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전력판매 및 화력발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온 결과다.

한전은 앞으로 현지화 전략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혀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기술 중심의 해외사업 대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를 가다 (1) 한국전력

15개국 33개 프로젝트 운영
 누적 매출 46조8000억 달성

지난해 3000억 이상 투자 회수
 프로젝트 관리능력 '탁월'

신기술 중심 해외사업 대진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추진

한전의 해외 전력시장 진출은 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돌파구 중 하나였다. 국내 전력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며 국내에서의 전력사업만으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해외사업을 선택했다.

한전은 최초 해외사업인 필리핀 말라야 사업에 이어 1996년 1200MW급 가스복합화력인 필리핀 일리한 사업의 국제경쟁 입찰을 주도함으로써 기술력과 노하우를 세계 전력시장에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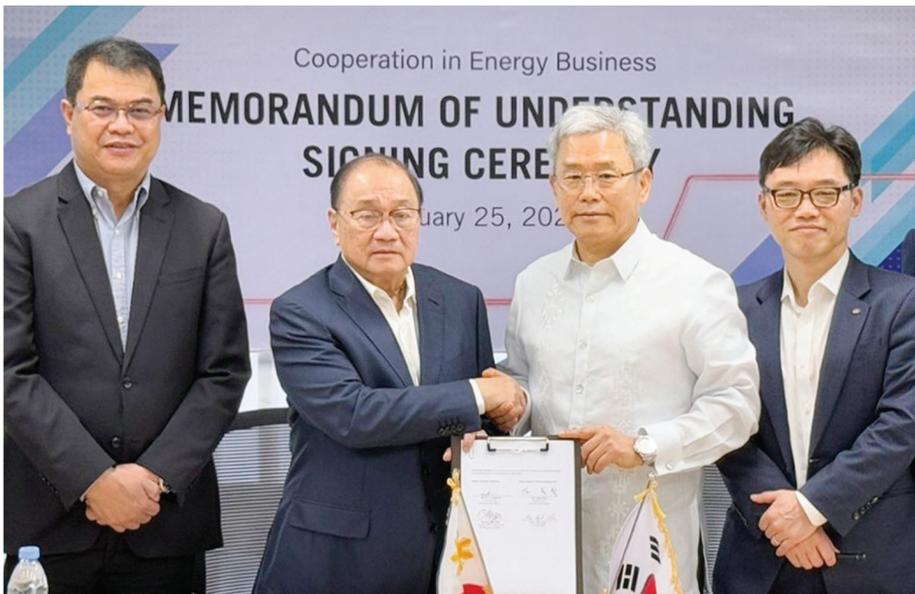
2000년대는 중국 풍력사업에 참여해 국내 최초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진출에 성공했고, 점차 사업을 확대해 중국 내 최대 외국 풍력사업자로 부상했다.

동남아, 중국 시장에 이어 한전은 2008년 요르단에서 373MW 가스복합화력 건설·운영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한국 최초로 중동지역 민자 발전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어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 1204MW 화력발전 건설·운영 사업, 2010년 UAE 1600MW 가스복합화력 건설·운영 사업, 2012년 요르단 573MW 화력발전 건설·운영 사업, 2013년 요르단 90MW 풍력발전 사업 등 수주에 성공하며 중동 지역에서 한전의 위상을 굳혔다.

중동 성과는 화력과 신재생 발전에 그치지 않았다. UAE가 발주한 총 47조원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2009년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한 것이다. 1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설계·건설하는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였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2010년 멕시코 433MW 가스복합화력 건설·운영 사업을 국제경쟁 입찰로 주도함으로써 거점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에도 진출해 60MW 태양광 건설·운영 사업, 198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최근 필리핀 최대 발전회사인 메랄코와 전력·에너지 분야 신기술·신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MW 가스복합화력 건설·운영사업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235MW 태양광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해외사업 성과로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매출액 46조8000억원과 국내 기업과의 동반진출 실적 30조2000억원을 달성했다.

그렇다고 사업이 과장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당시 중국에서 추진 중이던 신규 화력발전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해외사업 조직 역시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국내 최초로 사업 자체의 미래수익을 담보로 재원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은행 대출을 확보해 1999년 필리핀 일리한 발전소를 착공하고, 2002년 사업운전을 시작했다.

그 결과 한전은 말라야 발전소와 함께 필리핀 전체 설비용량의 14%인 1.85GW 설비를 운영하는 필리핀 4위의 대규모 민간발전사업자로 부상했다.

일리한 화력발전 사업은 2014년 PF기법으로 조달한 5억4000만 달러의 차관을 전액 상환한 뒤 2022년 사업종료 시까지 투자비 대비 회수가 총 332%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효자 사업이 됐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계획 중이던 입찰이 줄줄이 취소됐고, 건설 중인 사업들 역시 해당국의 섣달 운으로 인허가 획득이 어려워지고 자재 조달이 연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전은 이듬해 4조2000억 원 규모의 UAE 초고압 직류(HVDC) 해저 송전망 건설·운영사업을 수주했다.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의 해상유전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총 259km에 달하는 해저 송전망을 건설한 후, 35년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였다. 한전이 입찰 전반을 주도하고 삼성물산은 설계·시공, 한국수출입은행은 금융을 제공

하는 등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입찰 경쟁력을 극대화한 상생모델이다.

2022년에는 해외사업 최초로 열병합 사업수주에 성공했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가 발주한 317MW 열병합 발전 건설·운영 사업이다. 당시 글로벌 유수의 전력회사들이 모두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이었지만, 한전은 대용량 가스터빈을 활용한 고효율·친환경 기술역량을 전 세계에 입증하며 향후 5년간 30GW 규모의 복합화력 발주가 예상되는 사우디에 다시 한번 기반을 다졌다.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며 해외사업은 봄을 맞았다. 특히 지난해는 한전에게 의미가 특별하다. 총 6.2GW 규모의 신규사업을 수주하며 한전 지분 기준으로 약 6조5000억원의 매출과 4조4000억 원 규모의 국내 기업 동반진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지난해 글로벌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30년간 해외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발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원 이상의 투자회수 성과도 달성했다.

전년도 규모의 2.3배를 뛰어넘는 실적이다. 2900억원 이상의 배당금, 본사 기술지원을 통한 100억원 이상의 기술지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추진해 온 배당 관련 주주간 협상, 유상감자 등을 통한 전략적 재무관리 등에 공들인 맞춤형 경영관리 노력 덕분이라는게 한전 내부의 평가다.

한전은 최근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전 세계적인 재위기다. 한전은 조기 재무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자구책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자구대책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

해외사업에서도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세 번째 위기도 무난히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전력 산업 수출 확대를 통한 신규 수익의 지속 증대로 재무위기 타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또한 급변하고 있다. 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를 선도할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2040년까지 5경원에 달하는 신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각국 전력수요와 에너지 정책에 기반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며, '신기술 중심의 해외사업 대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추진 중이다.

한전이 보유한 핵심 우수 기술력을 기반으로 동남아, 중국, 북미 등 10개국에서 13개 신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 모델을 통해 기술 경쟁력도 높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과의 동반 진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 운영, 유지보수, 기자재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며 해외 전력 시장에서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방침이다.

특히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재무 건전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속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동반 진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해외사업에서의 지속적 수익 창출을 통해 재무위기 극복에 적극 기여하고, 대외적으로는 에너지 신사업 주도권을 확보해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말레이시아 풀라우인드 가스복합사업 현장



베트남 봉양2 화력사업 현장



광 태양광사업 현장